

마가복음 우선설 비판

오 광 만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신학

1 들어가는 말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Synoptic Gospels)이라고 불리는 앞의 세 복음서는 서로 간에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아 보인다. 표절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던 시대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세 복음서의 내용의 다양성과 아울러 유사성, 즉 광범위한 일치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최근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세 복음서가 공통적인 문헌적인 자료에 의존했든지, 아니면 상호간에 문헌적으로 의존했다고 단정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소개되었는데,¹ 그 중에서 두 자료설과 마가복음 우선설이 우세하다.

* 논문접수일: 2010. 3. 4
 논문수정일: 2010. 5. 3
 게재확정일: 2010. 5. 29

1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김병국, 정광욱 옮김, 『신약서론』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109-174; W. G. Kümm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박익수 옮김, 『신약정경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40-83.

이 논문에서 필자는 현재 신약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마가복음 우선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며, 이로 말미암아 공관복음서의 기록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선입견을 낳을 수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2 마가복음 우선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1089절(18,293단어), 661절(11,025단어), 1149절(19,376단어)로 이루어졌다. 이들 세 복음서는 분량이 다르지만 복음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사들(내용)과 각각의 기사에 사용된 어휘와 기사들의 배열의 순서가 비슷할뿐더러 세 복음서 안에서 동일한 기사가 저자들의 관심사의 차이에 따라 사용된 어휘나 문법, 자료의 배열 그리고 표현 방법 등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특히 세 복음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자료(Triple Traditions)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공관복음서에 문학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 문학적인 의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마가가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의존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2.1 내용과 근거

마가복음 우선설에 따르면, 마가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단편으로 전승되던 구전자료들을 처음으로 문서화하였다. 마가는 이음새(seams)를 이용하여 교회의 전승들을 이어 최초로 하나의 문서로 된 복음서를 만들었다. 마가복음 우선설은 1838년에 빌케(Wilke)와 바이세(Weisse)에 의해 주창된

이래 현재 서구, 한국 할 것 없이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² 홀츠만(Holtzmann)은 그의 책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신약개론』, 1885)에서 “좌우간 두 자료설이 공관복음 문제에 가장 개연성 있는 해결을 제시한다”고 선언하였다.³ 하지만 이 이론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하여 학계에 보급하는 데 공헌한 사람은 스트리터(B. H. Streeter)이다. 스트리터는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확대시킨 것으로,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인용하여 만든 간접적인 저작으로 생각한다. 스트리터는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⁴

첫째, (내용면에서) 마태는 마가의 자료를 91%, 누가는 마가의 자료를 55% 재생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어휘의 일치가 있다.

둘째,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자료에 해당되지만 다른 어휘를 사용하였다. 그럴 경우 마가복음과 비교할 때 마태와 누가의 어휘는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셋째, 마태와 누가는 일반적으로 마가의 순서를 따른다. 마태가 마가의 순서에서 이탈한 곳에서 누가가 마가를 지지하고, 누가가 마가의 순서를 이탈한 곳에서 마태가 마가와 일치한다.

넷째,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의 좀 더 원시적인 어휘를 개선했다.

다섯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있는 마가 자료와 비(非)마가 자료는 마가복음 우선설에 근거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최근 복음주의 진영에서 스트리터의 원칙을 좀 더 세분화하고 체계적으

2 두 자료설의 기초와 역사,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에 대해서는 Hans-Herbert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of the Marcan Hypothesis*, trans. Donald L. Niewyk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0 [German: 1977]), 27-131을 참조하라.

3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221에서 재인용.

4 B. H. Streeter, *The Four Gospels: A Study of Origins: Treating of the Manuscript Traditions, Sources, Authorship, & Dates* (London: Macmillan, 1924, 1964), 157-169.

로 정리한 사람은 로버트 스타인(Robert H. Stein)이다. 스타인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마가복음 우선설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원칙을 여덟 가지 항목으로 늘였다.

첫째, 길이로부터의 논증. 이것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 짧다는 것에 근거한 논증이다.⁵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 마가복음의 내용이 짧다는 사실은 마가가 마태복음에 의존했다기보다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의존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을 가능성을 크게 해준다는 것이다. 스타인은 전체 내용에 있어 마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예를 들어 탄생이야기와 족보, 산상설교 또는 평지설교)을 생략하는 것보다는 마가복음의 내용에 마태와 누가가 첨가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낸다.

둘째, 문법으로부터의 논증. 이것은 마가의 문체가 마태와 누가의 그것보다 더 거칠다는 것에 근거한 논증이다.⁶ 마가복음에 들어 있는 구어체와 열등한 문체, 아람어 표현들, 군더더기의 말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마가복음의 난해한 독법들.⁷ 마가복음의 표현들 중에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영향의 명백한 한계를 표현하는 것과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 사소한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어휘의 일치에 근거한 논증.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두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문학적으로 의존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⁸

다섯째, 순서로부터의 논증. 복음서 자료의 배열에 있어 마가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마태와 누가가 일치하는 일이 없다.⁹

5 R. H. Stein, *Studying the Synoptic Gospels: Origin and Interpretation*, Second Edition (Grand Rapids: Baker, 2001), 50-56.

6 Stein, *Studying*, 56-67.

7 Stein, *Studying*, 67-73.

8 Stein, *Studying*, 73-74.

여섯째, 문학적인 일치. 마가복음 우선성을 전제로 해야만 납득할 수 있는 단어의 생략과 어법들이 세 복음서에 나란히 등장하는 것은 마가복음 우선설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¹⁰

일곱째, 편집으로의 논증. 복음서 저자들의 신학적인 강조점들은 마가복음 우선설을 전제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하여 마태복음의 “다윗의 자손” 사용과 “이는…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어구 사용 그리고 반대로 마태복음과 비교하여 마가복음의 문체의 특징인 “곤(유뒤스, εὐθύς)”과 “이는(가르, γάρ)”의 사용은 마가복음 우선설에 비추어 읽어야 납득된다는 것이다.¹¹

여덟째, 신학에 의한 논증. 마가의 신학이 좀 더 “원시적”이라는 사실이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한다고 믿는다.¹²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 “주(퀴리오스, κύριος)”라는 단어가 여섯 번 사용된 것에 비해 마태복음에는 그 단어가 열다섯 번 사용되었는데, 스타인은 이것을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에 비해 마가복음이 이른 시기에 기록된 증거로 생각한다.

2.2 마가복음 우선설의 신학적 함의

마가복음 우선설은 공관복음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서를 입체적으로 읽고, 복음서 저자들의 독특한 신학과 저술의도를 파악하는 데 긍정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마가복음 우선설을 받아들일 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마가복음 우선설의 신학적인 함의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역사적 예수 연구와 관련된 문제이다. 역사적 예수 연구의 전제

9 Stein, *Studying*, 74-76.

10 Stein, *Studying*, 76-83.

11 Stein, *Studying*, 83-91.

12 Stein, *Studying*, 91-94.

는 복음서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리스도가 섞여 있다는 것이며, 이 둘을 구분하여 실제의 예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가복음 우선설에 따라 마가가 가장 원시적이고 생생하게 전승을 묘사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이 여느 다른 복음서보다 역사적 예수에 접근하는 가장 비중이 있는 책, 아니 유일한 책일 가능성이 있게 된다.¹³ 그래서 역사적 예수 탐구에 연루된 학자들 중에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우리를 역사적 예수에 가장 가깝게 데려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는 마르크센(W. Marxsen)이 주장하듯이, 신학적인 경계(警戒)이다. 마르크센은 마가복음 우선설을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공관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나 공관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함의 세 가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밝힌다. 첫째, 마태와 누가에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둘째, 마태와 누가에게 있어 마가는 “정경”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 마태와 누가에게 마가복음은 단지 자료(source 또는 document)로만 작용하고, 마태와 누가에 마가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변경시켰다면, 사실 마태와 누가는 그들의 모델로 삼은 마가를 “비정경적”으로 취급한 것이고, 두 저자에게는 본문을 변경하는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 셋째, 더욱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필히 마가복음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¹⁴

마르크센이 직시한 세 가지 내용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누구든지 주의하지 않으면, 마가복음 우선설 입장에서 수행되는 공관복음 연구가 자칫 신학적으로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13 Stein, *Studying*, 91.

14 Willi Marxse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An Approach to its Up-to-date Problems* (Philadelphia: Fortress, 1968[German: 1964]), 118.

그렇다면 공관복음서에 내재하는 일치와 불일치, 유사성과 상이성을 설명할 만한 좋은 방법은 아직 등장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마가복음 우선설을 비롯하여 상호 의존성이 가장 그럴 듯한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스스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관복음의 문제를 설명했다는 이 마가복음 우선설이 다른 이론에 비해 좀 더 (최신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이기에 그리고 현재까지 제시된 공관복음 문제의 해결 방법 중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기에 약간은 꺼려하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마가복음 우선설이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복음서의 문학적인 관계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가? 이제 마가복음 우선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3 마가복음 우선설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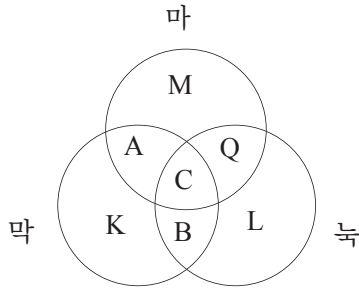
마가복음 우선설에서 제시된 내용이 정말 증명된 과학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검증된 바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자. 필자는 마가복음 우선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마가복음 우선설이 지니는 문제점과 논리적인 취약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3.1 복음서 자료와 관련하여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료에서는 마태와 누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을 상당히 의존했다는 것이 마가복음 우선설의 제1원칙이다.¹⁵ 마가복음의 자료가 마태와 누가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15 Streeter의 원칙 1번.

그래도 두 복음서의 비중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핵심 자료가 마태와 누가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Q자료이다.¹⁶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복음서의 자료를 (마가복음과 Q 등 두 자료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복음서 자료의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금세 나타난다. 공관복음서의 유사성과 상이성 문제를 떠나, 아래의 도표와 같이 공관복음을 구성하는 자료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료(전승)들은 적어도 일곱 개이며, 그것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료 - C.
- ②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자료 - A.
- ③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자료 - B.
- ④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만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자

16 이 문제는 역사비평학의 자료비평에 속한 문제이다. 자료비평은 성경 저자들 사이에 문학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존 자료를 사용했을 것이고, 공관복음서의 경우에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으며,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했다고 설명한다. 자료비평의 정당성을 주장한 Christopher Tuckett, *Reading the New Testament: Methods of Interpretation* (London: SPCK, 1987), 78-94를 보라. 그러나 자료비평이 공관복음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David Wenham, “자료비평,” in 『신약해석학』, 하워드 마셜 편집, 이성호, 박영호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204-219를 보라.

료 - Q.

⑤ 마가복음 고유자료 - K.

⑥ 마태복음 고유자료 - M.

⑦ 누가복음 고유자료 - L.

이 일곱 가지 자료는 공관복음서의 구성 요소로서 각각의 복음서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 있다.

마태복음에 들어 있는 전승 자료는 ACQM이며,

마가복음에 들어 있는 전승 자료는 ABCK이고,

누가복음에 들어 있는 전승 자료는 BCQL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 자료를 기록하고 나머지가 기존 자료를 의존한 것 인지의 문제(복음서 의존성)는 차치해 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 자료 만을 놓고 볼 때, 적어도 두 복음서 이상이 공유하는 자료는 ABCQ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한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계에서, ACQM으로 이루어진 마태복 음을 만들기 위해 마태가 마가복음의 AC 자료를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관계에서 BCQL로 구성된 누 가복음을 만들기 위해 누가가 마가복음의 BC를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최초의 문서로서 마가복음(ABCK)을 상정할 때, 마태가 BK를, 누가가 AK를 생략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마가복음 이외 에 마태가 Q와 M 자료를, 누가가 Q와 L 자료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설명해 야 한다. 또한 Q와 M과 L 자료가 마가복음처럼 기록된 문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구전인지의 문제도 설명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우리는 마가복음 우선설에서 ABC의 관계를 설명하느라 나머지 KMLQ 자 료 문제가 간과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 개의 자료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스타인은 누가복음 1:14을 그 증거로 제시하면서 마태와 누가 기록된 마가 자료를 의존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 중에서 주목할 구절은 누가복음 1:1-3이다.

ἐπειδὴ περ πολλοὶ ἐπεχείρησαν ἀνατάξασθαι διήγησιν περὶ τῶν
 πεπληροφορημένων ἐν ἡμῖν πραγμάτων, καθὼς παρέδοσαν ἡμῖν οἱ ἀπ’
 ἀρχῆς αὐτόπται καὶ ὑπηρέται γενόμενοι τοῦ λόγου, ἔδοξε καὶ μοι
 παρηκολουθηκóτι ἄνωθεν πᾶσιν ἀκριβῶς καθεξῆς σοι γράψαι,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스타인은 이 증언을 누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이전에 구전 전승과 아울러 공통된 기록된 자료가 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¹⁷ 그러면서 스타인은 여기서 구전 전승이란 우리가 말한 QML이고, 기록된 자료란 ABCK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이라고 암시하면서, 누가 Q와 마가복음 두 자료를 사용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마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타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복음서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는 정말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예외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마가복음은 단지 마태와 누가 자료를 사용한 원자료에 해당하는가? 마가는 구전 자료만 사용했고 기록

17 Stein, *Studying*, 45. 전승사적 입장에서 누가복음 서론을 논한 그의 글 “Luke 1:1-4 and Tradition Criticism”도 보라. R. H. Stein, *Gospels and Tradition: Studies on Redaction Criticism of the Synoptic Gospels* (Grand Rapids: Baker, 1991), 35-47. 특히, 45-46.

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또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ABCK)에서 왜 K는 생략했는가? 사실, 자료 문제의 심각성은 누가복음 1:1-4에 근거하여 스타인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누가가 기록된 자료로서 마가복음을 의존하였다는 것을 그의 서론에서 암시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누가복음 서론을 자세히 읽어 보면,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누가복음 1:1-4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가가 서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보다 먼저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하는 일에 착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기록한 내용과 기록 방식 등 세 가지다.

누가는 서론(눅 1:1-4)에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글을 쓰는 데 착수한 사람이 많다(πολλοί)”는 것과 이것은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ἐπειδόκησεν)” 사실이라고 밝힌다. 이 “많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누가가 밝히지 않았지만, 마가와 마태 혹은 Q 등 두 세 사람을 “많은”이라고 표기할 수 없다는 것만은 틀림없다.¹⁸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는 이들의 글을 의존했는가?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성문 자료인 마가와 Q의 저자 그리고 L자료의 저자로 보고 싶어 한다.¹⁹ 반면에 마태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마태와 구전을 수집하여 문서화한 익명의 저자들로 이해하려 한다.²⁰ 그러나 누가복음 서론에 언급된 “많은 사람들”은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18 Loveday Alexander, *The Preface to Luke's Gospel: Literary Convention and Social Context in Luke 1.1-4 and Acts 1.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14-115.

19 H. I. Marshall,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30-31;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AB 28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81), 63-65; J. Dillon, “Reviewing Luke's Project from His Prologue (Luke 1:1-4),” *CBQ* 43 (1981): 207; Darrell L. Bock, *Luke 1:1-9:50*, ECNT (Grand Rapids: Baker, 1994), 55.

20 A. W. Argyle, “Evidence for the View that St. Luke Used St. Matthew's Gospel,” *JBL* 83 (1963), 390-396; H. A. Guy, “Did Luke Use Matthew?,” *ExpT* 83 (1972), 245-249.

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누가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πολλοί)”이 “우리 중에 성취된 일들을 내용으로 하는(περί) 이야기(διήγησις)”를 기록하는 일에 착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착수하다(ἐπεχείρησαν)”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피츠마이어(J. Fitzmyer)는 이 단어가 헬라의 문학작품을 기록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된 말로서 “경멸적인 뉘앙스”를 지니는 것에서부터,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 말과, 실제로 그 일에 착수하는 경우까지 널리 사용된다고 밝힌다.²¹ 이들 중에 마가나 마태가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폴로이(πολλοί) 중에 착수한 일을 끝낸 사람(마태와 마가?)도 있었겠지만 착수만 하고 훗날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자신이 그들을 의존했다든가 그들의 글을 믿지 못할 것이라거나 그들의 작업이 실패했다는 등 그들 작업의 결과와 그들의 작업과 누가의 작업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앞에 기록된 문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²²

오히려 이어지는 말인 “나도(κἀμοί)···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눅 1:3)라는 말에 의하면, “착수했다”(ἐπεχείρησαν)는 말은 “많은 사람들”(πολλοί)의 착수작업이 실패했다거나 그 작업을 이제 막 시도했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어떤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²³ 여기서 특히 누가는 자신이 쓰려고 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에 착수한 사람

21 Fitzmyer, *Luke*, 291. 그리고 “ἐπιχειρῶ,” BDAG, 386; Alexander, *The Preface*, 109-110.

22 E. Linneman, *Is There a Synoptic Problem?: Rethinking the Literary Dependence of the First Three Gospels*, trans. R. W. Yarbrough (Grand Rapids: Baker, 1992), 190.

23 Alexander, *The Preface*, 115.

들과 자신을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독자들도 알고 있다는 것과 자신은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준 이야기를 “질서 정연하게(ἀνατάξασθαι)” 기록하는 것이라고 언급할 뿐이다.²⁴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이야기들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이면서 동시에 일꾼 된 사람들”이 전하여준 내용이다. 말씀의 목격자들이 목격하고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서 기록자들에게 “전해준 것(παρέδοσαν)”은 “우리 중에 성취된(πεπληροφορημένων)”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원 사역이다.²⁵ 이것은 교회 전승을 의미한다. 그것은 확증되고 잘 증언된 기사들이다.²⁶ 이러한 전승들을 전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말씀의 목격자들이면서 동시에 일꾼 된 사람들(οἱ αὐτόπται καὶ ὑπηρέται γενόμενοι τοῦ λόγου)”이다. 이들은 별개의 두 인물들이 아니라 “동일인”들이다.²⁷ “목격자들이요 동시에 일꾼 된 사람들(οἱ αὐτόπται καὶ ὑπηρέται)”은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증인(μάρτυς)과 말씀의 사역자들(ὑπηρέται)(행 1:21-23; 6:4; 특히 바울. 행 26:16; 고전 4:1; 15:8)인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사도들과 관계가 있다.²⁸ 이들은 교회 전승의 공적인 사람들인 열두 사도

24 Fritz Rienecker and Cleon Rogers, *Linguistic Key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76), 137.

25 Darrell Bock, “Scripture and the Realization of God's Promises,” in *Witness to the Gospel: The Theology of Acts*, eds. I. H. Marshall and D. Peterson (Grand Rapids: Eerdmans, 1998): 41-62, 44; Rebecca L. Denova, *The Things Accomplished Among Us: Prophetic Traditions in the Structural Pattern of Luke-Acts*, JSNTSS 14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6 Du Plessis, “Once More: The Purpose of Luke’s Prologue (LK 1.1-4),” *NovT* 16 (1974): 259-271, 263.

27 관사 οἱ는 두 명사 αὐτόπται와 ὑπηρέται에 영향을 미친다. Marshall, *Luke*, 42; John Nolland, *Luke 1:-9:20*, WBC 34A (Dallas: Word Books, 1989), 7-8; Joel B. Green,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41.

28 Fitzmyer, *Luke*, 294; B. Gerhardsson, *Memory and Manuscript* (Lund: Gleerup, 1961), 243-245.

들이다. 누가는 특히 그가 문서로 기록하는 내용이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살아 있는 전승과 개인적으로 접촉했음을 의미하는 “목격자(οἱ αὐτόπται)”라는 단어를 사용한다.²⁹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우리는 본문에 언급된 “많은 사람들(πολλοί)”이 사도적 전승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⁰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글은 믿을 만하고, 그들의 글과 “말씀의 목격자들이요 일꾼 된 사람들”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들이자 일꾼들”의 전승 자료를 기록한 사람들(πολλοί) 속에 자신도 집어넣는다. “나도(καὶ μοί)”라는 말로써 누가는 자신을 어떤 점에서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부류에 넣는 것이다.³¹ 비록 스타인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용한 기록 자료, 특히 마가 복음으로 보고 싶어 하지만, 그린(J. Green)은 적어도 본문에서는 누가가 그들의 자료를 사용했는지, 이들이 신약의 기록자들 가운데 하나인지 아닌지는 불행히도 알 수 없다고 솔직히 시인한다.³² 오히려 누가는 “자신도(καὶ μοί)”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의 목격자들이요 일꾼 된 사람들”이 전해 주는 “내력(즉 이야기, διήγησις)”을 기록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누가 복음 1:14에서 누가는 그의 자료가 사도적 전승에 기인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누가가 사용한 기록된 자료라는 암시를 이 본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누가의 작품은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사도적 전승에 근거하여 기록되었다. 블럼버그(C. Blomberg)가 지적하다시피, 이 원칙은 세 복음서 모두에 적용된다.³³ 그렇다면 공관복음서 기록은

29 Alexander, *The Preface*, 124.

30 Alexander, *The Preface*, 125.

31 Marshall, *Luke*, 42.

32 Green, *Luke*, 38.

33 Craig Blomberg,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the Gospels* (Downers Grove: IVP, 1987), 17-18.

문서적인 자료보다는 “목격자들이요 일꾼 된 사람들”이 전해준 구전 자료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된다.³⁴

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의 목격자들이요 일꾼 된 사람들”이 전승해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야기)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그들과 어느 정도는 차별화시킨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사실들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조사하였다.” 이 말로써 그는 자신이 독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복음서 내용을 기록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린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근원부터(ἀνωθεν) 조사하고 탐구하여(παρηκολούθηκόντι)”³⁵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과 차별화되었다고 주장한다.³⁶ 이것은 복음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³⁷ 말하자면 앞서 전승들을 기록한 사람들(πολλοί)이 그들 나름대로 규모 있게 작업에 착수하였다면, 누가 자신은 근원부터 탐구하고 그 자료를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며 “체계적으로” 글을 썼다고 밝히는 것이다.

복음서 저자들의 복음서 기록 과정이 이러하다면, 특히 전승사용의 문제 면에서 볼 때, 안병철이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마가복음 우선설의 문제는 단지 삼중 전승을 설명하는 시도에 관심을 갖는 반면, 실제로 복음서 기록에 관여한 공관복음서 자료의 복잡함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34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쉬운 전승의 형태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Riesenfeld의 글을 보라. H. Riesenfeld, *The Gospel Traditions* (Philadelphia: Fortress, 1970), 22. 또한 교사로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구전을 전수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Gerhardsson, *Memory*, 258을 보라.

35 παρηκολούθηκόντι의 의미에 대해서는 Du Plessis, “Once More,” 267; Dillon, “Reviewing Luke’s Project,” 218을 보라.

36 그러나 이것은 곧 앞의 선임자들인 polloi,들을 비평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건들의 순서에 더 가깝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구전 전승을 연속해서 나열하여 “기록된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Alexander, *The Preface*, 135-136.

37 Dillon, “Reviewing Luke’s Project,” 218-223.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³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자료로 두 저자가 마가복음을 의존했다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복음서 자료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Q와 M과 L 자료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과 아울러 그것을 마가복음 자료와 조화를 이루어 배열하는 것까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누가복음의 경우, 마가복음 우선설은 누가가 현재의 마가복음을 알았다면, 내용상의 자세한 일치 불일치는 고사하고, 전체 내용에서 왜 마가복음의 상당 부분(50%)을 생략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3.2 어휘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관복음 사이에 사용된 어휘가 유사하고, 게다가 그 어휘는 마가의 것이 상대적으로 거칠고 원시적인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며,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의존하여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생각한다.³⁹ 어휘의 유사함이 두 문헌 사이의 의존성의 근거가 될까?

신현우는 사본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단어나 단어 형태의 유사성, 내용의 유사성 등으로는 두 작품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신현우는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은 “두 저자가 공통 자료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문학적 의존성만이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공통 자료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⁴⁰

38 안병철, 『공관복음 문제』, 9. 이러한 사실로 인해 설명 차선택으로 마태복음 우선설인 그리스바흐 가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복음서 우선설로써는 공관복음의 일치와 불일치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병철, 『공관복음 문제』, 13.

39 Streeter의 원칙 2와 Stein의 논증 2와 6.

40 신현우, 『공관복음으로의 여행: 최초의 복음서를 찾아서』(서울: 이레서원, 2005), 159.

리네만은 세 복음서 사이에 존재하는 어휘의 유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리네만은 이에 대한 증거로 병행 단어의 일치 여부와 일치의 범위를 광범위한 통계 자료로써 제시하였는데, 특히 마가복음의 서른다섯 개의 단화를 분석하면서 이 단화들과 병행본문(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하였다.⁴¹ 리네만에 따르면, 마가복음 서른다섯 단화에 사용된 단어 수는 3,911개이며, 그 중에서,

마태-마가-누가의 일치되는 마가의 단어의 수	867개(22.17%)
마태와 마가의 일치되는 마가의 단어의 수	1,603개(40.99%)
마태와 마가의 불일치하는 단어의 수	3,742개(마/막의 비율 95.68%)
마가와 누가의 일치되는 마가의 단어의 수	1,341개(34.29%)
마가와 누가의 불일치하는 단어의 수	3,928개(눅/막의 비율 100.43%)
마태와 누가의 일치되는 단어의 수	135개(마=눅/막의 비율 3.5%) ⁴²

이 분석에 의하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의존한 비율을 근거로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기에는 그 의존도가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의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마가복음에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한 단어)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신약성경에 사용되는 어휘 중에서 공관복음서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 수는 마태복음에 101개, 마가복음에 75개, 누가복음에 282개가 있다.⁴³ 상대적으로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많은 누가복음은 나머지 두 복음서보다 다른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때문이라고 하

41 Linnemann, *Is There*, 116-128.

42 여기서 전적인 일치는 단어의 성, 수, 격, 시제의 일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Linnemann, *Is There*, 110.

43 이것은 H. Bachmann and W. A. Slaby, *Concordance to the Novum Testamentum Graece of NA²⁶ and to the Greek NT^{3rd} Edi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7)의 어휘 빈도수에 근거한 것이다.

더라도 마가복음에 하팍스 레고메논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상하다.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한 어휘가 총 1,345개인 것을 감안해 볼 때,⁴⁴ 마가복음에서 총 어휘 수와 비교하여 하팍스 레고메논의 비율은 5.5%이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의존했다고 하기에는 5.5%는 적잖은 비율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리네만은 마가복음의 어휘 중에서 하팍스 레고메논을 포함하여 적어도 187개가 마태나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비율은 마가복음 전체 단어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와 누가가 완전히 상호 동의로, 그렇지만 마태와 누가가 상대방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독립하여 이루어진 것이다.⁴⁵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이 독특한 단어들을 자기들의 복음서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마태와 누가는 마가가 사용한 어휘 중에서 830개(즉 61.71%)를 공유한다. 리네만에 따르면, 그나마 단어 830개 중에는 의사 전달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들- 예를 들면, 관사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조동사 의문사 숫자 등 -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의 독특한 용어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 “믿음” 등과 같은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복음서에 20번 이상 사용되는 단어는 신약의 일반적인 단어로 간주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494단어이다.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마가복음과 공유하는 830단어 가운데 494개는 신약성경에서 스무 번 이상 발견되는, 신약의 어느 저자나 공유하는 단어인 셈이다. 이런 것을 제외하면 빈도수 20회 미만에 해당하는 단어(336단어)

44 Robert Morgenthaler, *Statistik des neutestamentlichen Wortschatzes* (Zürich/Frankfurt: Gotthelf, 1958), 164. Linnemann, *Is There*, 132에서 재인용.

45 Linnemann, *Is There*, 132. 그리고 생략된 단어 목록은 133-134를 보라.

만이 마가의 고유한 단어인 셈이다. 말하자면 마가복음에 사용된 마가 특유의 실질적인 336단어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셈이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 어휘의 24.9%에 해당한다. 거기다가 336개 단어 중에서는 105개 단어가 적어도 다른 세 복음서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성경 그룹에 등장하여 신약성경을 형성한다.⁴⁶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마태와 누가가 이 단어들을 마가와 공유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마가를 의존했다고 할 수 없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의존했다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찰 내용을 삼중 전승 중의 한 단화(“시몬의 장모 치유” 기사)에 적용해 보자.

마태복음 8:14-15	마가복음 1:29-31	누가복음 4:38-39
14 Καὶ ἔλθων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οἰκίαν Πέτρου εἶδεν τὴν πειθεράν αὐτοῦ βεβλημένην καὶ πυρέσσουσαν 15 καὶ ἤματι τῆς χειρὸς αὐτῆς, καὶ ἀφῆκεν αὐτὴν ὁ πυρετός, καὶ ἡγέρθη καὶ διηκόνει αὐτῷ	29 Καὶ εὐθὺς ἐκ τῆς συναγωγῆς ἔξελθόντες ἦλθον εἰς τὴν οἰκίαν Σίμωνος καὶ Ἀνδρέου μετὰ Ἰακώβου καὶ Ἰωάννου 30 ἡ δὲ πειθερὰ Σίμωνος κατέκειτο πυρέσσουσα, καὶ εὐθὺς λέγουσιν αὐτῷ περὶ αὐτῆς 31 καὶ προσελθὼν ἤγειρεν αὐτὴν κρατήρας τῆς χειρὸς· καὶ ἀφῆκεν αὐτὴν ὁ πυρετός, καὶ διηκόνει αὐτοῖς	38 Ἀιαστὰς δὲ ἀπὸ τῆς συναγωγῆς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ὴν οἰκίαν Σίμωνος πειθερὰ δὲ τοῦ Σίμωνος ἦν συνεχομένη πυρετῷ μεγάλῳ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ὸν περὶ αὐτῆς 39 καὶ ἐπιστὰς ἐπάνω αὐτῆς ἐπέτιμήσεν τῷ πυρετῷ καὶ ἀφῆκεν αὐτήν· παρεσχρήμα δὲ ἀναψῶσα διηκόνει αὐτοῖς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는 세 복음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

46 Linnemann, *Is There*, 134.

마가	□ 21개(48%)
누가	■ 20개(53%)

이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과 공유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에 사용된 단어 중에서 어떤 유든 마가복음과 공유하는 것은 49%로, 마태복음의 독특한 단어 48%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누가복음에 사용된 단어 중에서 어떤 유든 마가복음과 공유하는 것은 마태복음보다 적은 45%로, 누가복음의 독특한 단어 53%에 훨씬 못 미친다. 반대로,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와 공유하는 단어는 33%(마태)와 39%(누가)이며, 이것 역시 마가복음의 독특한 단어 45%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⁴⁷

이 단화에서 세 복음서 사이에 문학적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단 어휘의 빈도수의 적음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야기의 상황 묘사 역시 세 복음서에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후 문맥에서 마가와 누가는 이 이적 이야기를 가버나움의 회당 사건 바로 다음에 배치하였다(막 1:21-28; 눅 4:31-37). 반면에 마태는 이 이야기가 가버나움에서 발생한 백부장의 하인 치료(마 8:5-13) 다음에 발생한 것으로 배치하였다. 세 복음서 모두 가버나움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마가와 누

47 김상복에 의하면, 어휘 일치가 낮은 단화들의 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휘 일치가 비교적 높은 부분에서도 세 복음서가 일치하는 단어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 “금식에 관한 교훈”(막 2:18-22과 병행구)을 예로 들면, 복음서에서 어휘가 일치하는 비율이 마태 49.5%, 마가 39.5%, 누가 36.4%, 마태와 마가가 일치하는 비율이 마태 72.8%, 마가 58.1%, 마가와 누가가 일치하는 비율이 마가 55.8%, 누가 51.4%, 마태와 누가가 일치하는 비율이 마태 51.5%, 누가 37.8%이다. 그리고 각 복음서의 특수 단어의 비율은 마태 12.6%, 마가 20.1%, 누가 37.8%이다. 김상복은 어휘 일치가 평균적인 단화의 경우의 예로서 “마태를 부르심” 단화(막 2:13과 병행구)를 꼽았는데, 이 경우에도 마태와 마가가 일치하는 비율이 66.7%와 56.8%이고, 마가와 누가가 일치하는 비율은 44.9%와 52.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Sang-Bok Kim, *The Sources of the Synoptic Gospels-The Priority of Mark: Fact or Myth?* (Seoul: Torch Publishers, 1993), 91, 97.

가만 이야기 진행상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다(막 1:29; 눅 4:38). 그리고 자세한 상황 묘사도 복음서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복음의 어휘의 유사성은 대단히 부풀려진 것이며, 이 어휘의 일치와 불일치의 분량을 근거로 두 자료설(마가복음 우선성)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3.3 순서의 일치와 관련하여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공관복음서 배열에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와 일치하는 곳에서 예외 없이 마가의 순서를 따르고 마태와 누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마가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의존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한다.⁴⁹ 이것은 라흐만(K. Lachmann) 이래로 바이세와 홀츠만이 주장한 “아쿨루디아(akoluthia, 공동의 연속)”가 발생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내린 결론이다. 즉 어느 저자의 글을 다른 저자가 연속해서 이어 쓴 것이 발견될 경우 연속해서 쓴 작품은 다른 것을 의존했다고 보는 이론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순서 가운데 세 단화, 네 단화, 심지어 일곱 단화가 연속해서 쓴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 과연 이 기준은 정당한 것일까?

슈톨트(H. Stoldt)는 마태와 누가복음에 복음서의 내용이 연속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이 마가복음의 우선설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별개의 두 작품 사이의 문학적인 관계를 서술하는 방법에는 어느 한

48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한 V. H. Stanton, A. Loisy를 참조하라. T. R. W. Longstaff, *Evidence of Conflation in Mark? A Study of the Synoptic Problem*, SBLDS 28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203 n. 27.

49 Streeter의 원칙 3과 Stein의 지적 5번. Streeter, *The Four Gospels*, 161-62. 이것은 Karl Lachmann이 “순서에 의한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35.

저자가 다른 저자의 글을 사용한 직접 연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저자가 공통 자료를 사용한 간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킨다.⁵⁰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먼저 실제로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순서를 따랐는지, 아니면 역으로 마가가 마태와 누가의 순서를 따랐는지, 또 여기에 어떤 공통의 자료를 사용한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가복음 1:21-5:43과 마태복음 병행본문을 비교해 보자.⁵¹ 이것을 마태복음의 순서를 기준으로 나열하고 그 옆에 마가복음의 순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단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순서
나병환자 치유	8:1-4	1:40-45	3
백부장 이야기	8:5-13	—	—
시몬의 장모 치유	8:14-15	1:29-31	1
저녁의 치유	8:16-17	1:32-34	2
배척 받은 제자들	8:18-22	—	—
풍랑을 잔잔케 함	8:23-27	4:35-41	7
거라사의 귀신들린 사람	8:28-8:34	5:1-20	8
중풍병자 치유	9:1-8	2:1-12	4
레위를 부르심	9:9-13	2:13-17	5
금식에 관한 질문	9:14-15	2:18-20	6
야이로의 딸	9:18-26	5:22-43	9

마태의 순서에 의거할 때, 마가는 마태의 단화 중 두 개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비교하여 두 개 연속해서 등장하는 단화가 두 개(1-2; 7-8), 세 개 연속해서 등장하는 단화가 한 개(4-6)가 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가 얼마나 공동의 연속(akoluthia) 현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마가의 순서를 기준으로 마태의 순

50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36-137.

51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38.

서를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마가의 순서〉	마태의 순서
시몬의 장모 치유	2
저녁의 치유	3
나병환자 치유	1
중풍병자 치유	6
레위를 부르심	7
금식	8
풍랑을 잔잔케 함	4
거라사의 귀신들린 사람	5
야이로의 딸	9

마가의 순서에 의거할 때 마태는 마가의 단화에 없는 단화 두 개(마 8:5-13의 백부장 이야기와 8:18-22의 배척 받은 제자들 이야기)를 첨가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비교하여 두 개 연속해서 등장하는 단화가 두 개(2-3; 4-5), 그리고 세 개 연속해서 등장하는 단화가 한 개(6-8)가 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의거했을 때 마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두 복음서 사이에는 연속적인 이야기 나열도 없을뿐더러, 어느 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보다 우선한다는 암시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연속성에 근거하여 어느 것이 다른 것을 의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즉 공관복음에 순서의 유사성이 발생한다고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으레 마가복음을 의존하여 복음서의 단화들을 배열했다고 하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⁵² 그렇다면 순서에 의해 복음서의 선후를 따진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심지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주관적인 편향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배열 상의 유사성으로 마가복음 우선설의 논리를 판단하면, 마태와 누가 마가복음을 의존한 것만 아니라, 역으로 마가가 마태와

52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39.

누가를 의존했다는 그리스바흐의 가설도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⁵³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순서에 의한 마가복음 우선설의 논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⁵⁴ 롱스태프(T. R. Longstaff)는 오히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의존하여 두 자료를 병합(conflation)한 흔적이 될 수 있다고 밝힌다.⁵⁵ 병합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결국 공관복음 문제 해결에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마가복음 우선인지 아니면 마태복음 우선인지에 관심을 갖는 반면, 실제로 어느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느냐는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슈톨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순서에 일치하지 않으며, 마가복음이 다른 두 복음서에 대해 우선의 관계가 아니라 두 복음서와 대등하게 병행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마가는 마태와 병행을 이루는 때도 있고, 누가와 병행을 이루는 때도 있다. 또한 마가는 때로는 두 복음서(마태복음과 누가복음)와 병행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두 복음서와 달리 해 가며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⁵⁶ 슈톨트는 복음서에는 “실제로 연

53 실제로 Riley는 이 사실을 근거로 마태복음이 공관복음 중에서 먼저 기록된 증거(내적, 외적 증거)를 제시한다. Harold Riley, “Internal Evidence,” in *The Order of the Synoptics: Why Three Synoptic Gospels?*, eds. Bernard Orchard & Harold Riley (Peeters: Mercer, 1987), 3.

54 B. C. Butler, *The Originality of St. Matth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특히 5장의 “The Lachmann Fallacy”; W. R. Farmer, *The Synoptic Problem: A Critical Analysis* (New York: Macmillan, 1964), 66. 반면에 Kümmel은 Lachmann의 논리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 Kümmel, 『신약정경개론』, 59-62.

55 Longstaff, *Evidence of Conflation*, 2. Longstaff는 마가복음의 여섯 본문(1:29-31, 32-34; 3:1-6; 9:38-41; 11:15-19; 14:12-21)을 분석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바흐 이론이 마가와 다른 복음서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설명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한다. *Evidence of Conflation*, 218.

56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36.

속도, 단순히 재구성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의 흐름도 없으며,” 복음서 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한편 마가와, 다른 한편 마태와 누가 사이의 병행구의 전이(shifting parallels)만 있다”고 주장한다.⁵⁷ 이런 의미에서 순서의 일치를 병행구의 전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할 경우, “공관복음의 순서는 마가의 순서를 따르고” 있고, 특히 “마태와 누가의 순서는 마가복음과 일치할 경우에 한해서만 일치하고, 마가복음과 다른 경우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위 라흐만의 오류(Lachmann Fallacy)는 오류라는 것이 드러난다.⁵⁸

슈톨트가 순서에 의한 논증을 소규모로 제시했다면, 슈톨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서 전체를 분석하면서 순서에 의한 논증이 문학적 의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복음서 전체에 적용한 학자는 리네만이다. 리네만은 두 개 이상의 문학 작품에서 이야기의 공통적인 순서가 발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공통된 문학적 자료를 통하여 이야기를 전수받은 경우이고, 둘째는 묘사된 사건들의 (고유의) 특성과 사건들이 원래 그런 진행 순서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⁵⁹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선입견은 첫 번째를 지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복음서의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57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41.

58 H. N. Palmer, “Lachman’s Argument,” *NTS* 13 (1967), 372-75, 379. Lachmann Fallacy는 Butler가 처음 붙인 용어이지만, Butler는 실제로 Lachmann이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보다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Lachmann의 논증을 따라간 그의 제자들이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Butler, *The Originality*, 62-63. Kümmel은 Lachmann의 오류에 대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은 이해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라흐만의 오류는 아니라”라고 여전히 마가복음 우선설의 입장을 두둔한다. Kümmel, 『신약정경개론』, 59. 하지만 Kümmel이 Barr와 Morgenthaller의 공관복음의 병행구를 통해 마가복음 1:1-6:6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한 것에서, Kümmel 자신은 누가가 마가의 순서를 네 번 벗어났고, 마태가 두 번 벗어난 것을 인정하였다. Kümmel, 『신약정경개론』, 60-61.

59 Linnemann, *Is There*, 83.

리네만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를 밝혔다. 알란트(K. Aland)의 *Synopsis*(『복음서대조』)를 예로 들어 보자. 알란트의 *Synopsis*에는 마가복음이 전부 115개의 독립 단락으로 배열되었다.⁶⁰ 그런데 이 115개 중에서 58개만 공관복음에 같은 순서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 단락 가운데 50.43%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58개 중에서 21개(36.21%)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는 단락들이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과 관련이 있는 단락(14:1-16:8)이 24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중에서 21개가 모든 공관복음에서 같은 순서로 되었다(87.50%)는 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전수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순서의 일치는 동일 사건의 연속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음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세 복음서에는 이야기의 순서에서 눈에 띄는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유사성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리 광범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리네만에 따르면,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와 병행이 없는 마가 특수 자료는 3:20-21; 4:26-29; 7:33-37; 8:22-26; 13:33-37이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3.09%에 해당한다.⁶¹ 그런데 마가의 특수 자료들만 마태와 누가복음에 관련이 없는 유일한 단화인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에 누락되고 심지어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단화들도 많이 있다. 마가복음에 특수 자료들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발견되는 단화 여덟 개가 마태복음에 생략되었다.⁶²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4.25%에 해당한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마가의 단화 열아홉 개가 생략되었다.⁶³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19.18%에 해당한다.⁶⁴

60 Aland, *Synopsis*, 551-575.

61 Linnemann, *Is There*, 97.

62 막 1:21-22, 23-28, 35-38; 3:7-12; 6:30-31; 9:38-40; 11:18-19; 12:41-44.

63 막 1:16-20; 3:28-30; 4:32-34; 6:1-6, 18-29, 45-52, 53-56; 7:1-23, 24-30; 8:1-10, 14-21; 9:11-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병행 단화 내에서도 마가의 자료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슈톨트는 마가복음의 언어적 형태에서 180 사례(1,498단어)가 병행본문의 구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⁶⁵ 리네만은 마가복음에 만 있는 사소한 설명들, 즉 마가복음에 첨가된 내용들이 258 사례(2,013단어)이고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17.93%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⁶⁶ 게다가 리네만은 공관복음 사이에 대체적으로 병행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2,360 단어(21.02%)이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사이에 병행이 결여된 것이 6,009 단어(44.51%),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병행이 결여된 것이 7,168 단어(57.10%)라고 밝힌다.⁶⁷ 이 경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의 유사성은 겨우 46%,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의 유사성은 불과 36%에 지나지 않게 된다.⁶⁸ 이러한 통계는 에드가(T. R. Edgar)가 제시한 것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 에드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들의 주제 문제에 있어 68%만 공유하며, 반면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41%만 공유한다고 결론을 내린다.⁶⁹

오스본과 윌리엄스는 두 저자 사이에 68%의 유사성이 발견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며, 왜 100%를 요구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린다.⁷⁰ 하지만 앞에서 확인한 통계 자료가 옳다면, 공관복음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만큼 유사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그러므로 이 빈약한 수치의 유

13; 10:2-10, 35-40; 11:12-14, 20-26; 14:3-9, 55-61; 15:16-20.

64 Linnemann, *Is There*, 99.

65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1-17.

66 Linnemann, *Is There*, 100-101.

67 Linnemann, *Is There*, 103-104.

68 Linnemann, *Is There*, 109.

69 T. R. Edgar, "Source Criticism: The Two-Source Theory," *The Jesus Crisis*, ed. R. L. Thomas & F. D. Famell (Grand Rapids: Kregel, 1998), 139.

70 Osborne & Williams, "The Case for the Markan Priority," 31.

사성에 근거하여 문학적인 의존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3.4 복음서 내용의 분량과 관련하여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근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이 다른 두 복음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다.⁷¹ 길이에 의한 논증은 마가복음에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것에 의한 논증인데, 이것은 이미 두 문헌 사이의 관계를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시도된 설명이다. 즉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태와 누가가 후대에 첨가했을 가능성이 마가가 생략할 가능성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메이봄(H. Meijboom)이 지적하였다시피, 복음서의 길이가 길고 짧은 문제는 복음서 저자들의 개인적인 성향(메이봄의 표현을 빌자면, “신학적인 관점”) 때문이지 기록 시기의 선후 문제가 아니다. 메이봄에 따르면, 복음서 저자들은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편찬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 복음서 저자는 “단순히 역사적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일치하는 그리스도 상을 묘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는 그 특성상 신학적이고, 이것이 복음서 분량에 반영되었다.⁷²

게다가 전체 분량 면에서 볼 때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분량이 짧지만 개별 단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마가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보다 길다. 룽스태프는 이것이 마가가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를

71 이것은 Stein의 논증 1에 해당한다.

72 Hajo Uden Meijboom, *A History and Critique of the Origin of the Marcan Hypothesis 1835-1866. A Contemporary Report Rediscovered*, trans. John J. Kiwiet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3<Dutch: 1866>), 98-101. 특히, 98.

병합하여 타티안 식의 종합적인 이야기(『디아테사론』)를 만들어서 발생한 것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⁷³ 그렇다면 현재의 마가복음의 특성상 오히려 마가복음이 후대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 안병철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병합 현상을 주시하면서 이처럼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마가복음이 마태와 누가의 원천적인 자료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한다. 전승이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절을 형식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⁷⁴ 이런 이유로 개별 단화의 경우,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생략했다기보다는 좀 더 오래된 전승에 마가가 첨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⁷⁵ 심지어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네이링크(F. Neirynck)조차 마태와 누가가 마가와 불일치하지만 마태와 누가가 서로 일치하는 단화들 대부분이 마가가 더 오래된 내용에 첨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⁷⁶ 파머(W. Farmer)도 “저자들은 자료들을 때로는 늘이고, 때로는 압축하기 때문에, 해당 구절의 상대적인 길이가 그 구절이 다른 구절보다 원초적인지 부차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⁷⁷

메이봄이 주장하듯이, 복음서 저자들에게는 “(구두 전승) 내용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오해할 만한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었

73 I Longstaff는 막 1:29-31; 1:32-34; 3:5-6; 9:38-41; 11:15-19; 14:12-21을 예로 들어, 마가가 마태와 누가를 의존한 단어와 병합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Longstaff, *Evidence of Conflation*, 129-201, 특히 129-137.

74 안병철, 『공관복음문제』, 44. 안병철은 마태복음의 상대적으로 고대적 특성을 지니는 본문 열여섯 개와(71-81) 누가복음이 상대적으로 고대적 특성을 지니는 본문 세 개를 열거한다(100-102).

75 안병철, 『공관복음문제』, 42.

76 F. Neirynck, *The Minor Agreements of Matthew and Luke Against Mark* (Leuve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4).

77 Farmer, *The Synoptic Problem*, 230, 또한 E. Sanders, *The Tendencies of the Synoptic Tradi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246.

다.⁷⁸ 그러므로 복음서 이야기가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자료들에 근거하여 또 복음서 저자들이 객관적이고 좀 더 독립적인 자료 사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선후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메이봄의 결론은 정당하다.⁷⁹

3.5 마가복음의 문체와 관련하여

마가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근거는 “마가가 다른 저자들보다 문체와 이야기 묘사에 있어 더 자연스럽고 생생한 영향을 사용하여” 목격자적 증언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있다.⁸⁰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마가복음을 역사적 예수와 더 가까운 증언을 해준다고 믿으면서 그 동안 학계에서는 마가복음이 다른 두 복음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⁸¹ 마가복음의 문체가 생생하고, 히브리적 문체에다 현란한 색채감으로 넘친다는 사실은 마가복음 우선자들(Weisse, Weiss, Jülicher, Wernle)이 자주 지적해오던 내용이다. 문체에 근거하여 마가복음의 우선설을 지지한 에발트(H. Ewald)의 다음의 말은 유명하다. “마가복음은 신선한 생동감과 현란한 색채로 가득 찬 반면에, …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신선한 꽃의 이 ‘달콤한 향기’를 더 이상 전하지 못한다.”⁸² 이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판단이다. 사실 어떤 면

78 Meijboom, *A History and Critique*, 104.

79 Meijboom, *A History and Critique*, 103.

80 C. H. Weisse, *Evangelische Geschichte*, vol. 1, 68.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59에서 인용. 이것은 Streeter의 원칙 4와 Stein의 두 번째 주장에 해당한다.

81 J. K. Elliott, “The Synoptic Problem and the Laws of Traditions: A Cautionary Note,” *ET* 82 (1970-71): 148-152, 148.

82 Heinrich Ewald, *Jahrbücher* (1849), 204.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60-161에서 재인용.

에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⁸³

그러나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야기를 실제로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문체의 원시성과 문체의 생동감이 다른 글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문체의 원시성 또는 문체의 생생함을 근거로 문헌의 선후를 따지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슈톨트는 이것을 비교점이 잘못된 오류라고 지적한다.⁸⁴ 문서의 선후는 문학 장르와 관련을 지어지지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인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마가복음 문체의 생생함을 원작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싶어 하지만, 웅(W. Ong)이 지적하다시피, 문학 역사에서는 글을 제시하는 데 관여한 생생함이 문학 작품이 기원한 순서의 측정이라는 법칙이 없다. 생생한 표현은 구술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와 저자의 문학적인 경향 문제이지, 문헌의 원시성 문제와 상관이 없다.⁸⁵ 허더(Herder) 역시 마가복음에 생동감이 존재하는 것은 글을 읽지 않고 말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밝힌다.

어느 복음서든지 문학적인 특질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83 예를 들어 변화산에서 음성이 들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마태복음 17:5은 마가복음 9:7보다 더 사실적이고 다채롭다.

84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65.

85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이기우,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1995), 79, 91.

같은 살아 있는 소리가 있다. … 이 복음서(마가복음)는 큰 소리로 읽혀지던 것이었다. … 요컨대, 마가복음은 공중 석상에서 읽기 위한 일반 언어로 쓰여진 살아 있는 이야기들에서 기록된 것이다. … 그것들(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말하지 않고 쓰는 것이다. 문체가 어조를 바꾼다.⁸⁶

한 마디로 말해서 복음서의 문체는 복음서 저자 개인의 문체와 관련된 문제이지, 원천 자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복음서의 문체는 구두 전승의 결과도, 기록된 자료에서 구성한 것도 아니라 저자 자신의 저작 특성에 속한다.⁸⁷ 메이봄은 생생한 표현이 어떤 작품의 원시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저자의 창조적 상상력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서 고유의 문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복음서 저자들의 언어 사용의 특성(linguistic character)에 불과하며, 문헌의 선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이다.⁸⁸

3.6 신학적인 변형과 관련하여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기독교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덜 발전된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마가복음이 더 오래된 것으로 생각한다.⁸⁹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명칭이 고기독론(高基督論)인

86 Herder, *Vom Erloser der Menschen* (1796), vol. 16, 1279.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67에서 재인용.

87 Wenham, “자료비평,” 208-210; Meijboom, *A History and Critique*, 105, 110;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69-172. 이미 20세기 초에 H. Weissee, A. Jülicher, V. H. Stanton, C. S. Patton, V. Taylor 등이 이와 동일한 의견을 주장했다. 신현우, 『공관복음』, 179.

88 Stoldt, *History and Criticism*, 169-172. 특히, 172. 이것은 이미 20세기 초에 H. Weissee, A. Jülicher, V. H. Stanton, C. S. Patton, V. Taylor 등이 이와 동일한 의견을 주장했다. 신현우, 『공관복음』, 179.

89 B. M. Metzger, *New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London: Lutterworth,

“주”(κύριος)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랍비,” “선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는 것이다. 과연 저자의 표현과 신학이 문헌의 의존성과 문헌의 선후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신학에 근거하여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신학의 발전 여부가 문헌 간의 시간적 선후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뎃처(T. Thatcher)는 기독교 공동체마다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신학적 전통이 공존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⁹⁰ 말하자면 그것은 공동체의 전통 문제이지 문학적 선후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에드가 역시 “신학의 수준은 저자에 따른 것이며, 저술 순서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⁹¹ 사실 바울서신이 공관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지만 고기독론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예이다.⁹² 마가복음도 예외는 아니다. 메이boom은 마가복음의 기독론이 “다양한 환경과 반성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 몇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이 요소들이 본체론적인 의미에서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기 위해 (마가의) 목적에 통합되었다”고 주장한다.⁹³ 그러므로 학자들이 더 발전된 신학이라든가 덜 발전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공동체의 신학적인 특성을 반영할 뿐이며 문헌간의 시간적 선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랍비(또는 선생)”라고 부른 것을 살펴보자. 리스너(R. Riesner)는 복음서에 사용된 예수님의 명칭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선생”(διδάσκαλος 또는 ῥαββί)이라고 부른 것이,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사

1969), 81-82; Stein, *Studying*, 91-94.

90 T. Thatcher, “Early Christianity and the Synoptic Eclipse: Problems in Situating the Gospels of Thomas,” *Biblical Interpretation* 7 (1999), 334.

91 Edgar, “Source Criticism,” 145.

92 Farmer, *Synoptic Problem*, 230.

93 Meijboom, *A History and Critique*, 139.

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신학의 발전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리스너에 따르면, “디다스칼레(διδάσκαλέ διδάσκαλος)”는 히브리어/아람어의 “랍비(רַבִּי)”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원래 “my great one”이라는 의미였다. 게다가 1세기에 랍비는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임명을 받은 서기관을 가리키는 고정된 칭호가 아니었으며, 꼭 교사에게 사용된 것만도 아니었다.⁹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의 눈에 “참된 교사”로 비쳤다. 예수님은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어록(sayings) 자료뿐만 아니라 이적 이야기와 같은 기사들에 대해서도 암기나 반복 등 랍비들이 할 수 있는 전승 효과를 발휘했다.⁹⁵ 그렇다면,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부차적인 신학적인 동기에 의하여 소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레스타인적이고 1세기의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⁹⁶

그런데 왜 학자들은 기독교론적인 명칭을 가지고 공관복음서의 선후를 따지고 복음서간의 직접적인 문학적인 의존 가설을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학자들이 구두 전승의 존재는 간과하고 공관복음 이전 단계에 문학적인 연결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⁹⁷ 예수님이 “선생” 또는 “랍비”이신 것과 관

94 Rainer Riesner, “Jesus as Preacher and Teacher,” in *Jesus and the Oral Gospel Traditions*, ed. Henry Wansbrough, JSTNSS 6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186. 이 내용은 리스너 자신이 그의 책 *Jesus als Lehrer: Eine Untersuchung zum Ursprung der Evangelien-Überlieferung*, WUNT II/7 (Tübingen: Mohr, 1988), 246-253을 요약한 것이다.

95 B. Gerhardsson, *The Origins of the Gospel Traditions* (1979), 배용덕 옮김, 『복음서전승의 기원』 (서울: 솔로몬, 1993), 67-70, 99-108.

96 Riesner, “Jesus as Preacher and Teacher,” 188.

97 예를 들어, B. Chilton, *Profiles of a Rabbi: Synoptic Opportunities in Reading about Jesus*, BJS 177 (Atlanta: Scholars Press, 1989); E. Sanders & M. Davies, *Studying the Synoptic Gospels* (London: SCM, 1989), 이광훈 옮김, 『공관복음서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7-127.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διδάσκαλε라고 불리는 것은 변경했고, ... 마태는 제자의 입에 διδάσκαλε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유다가 예수님을 ῥαββί라고 부르게 한다(마 26:25, 29). 신학적인 근거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련하여 우리는 리스너가 지적인 예수님과 그분의 열두 사도들의 관계가 “선생”과 “제자” 또는 “사도”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도(ἀπόστολος, ἡμιπῶ)”는 보냄을 받은 자로 선택받은 자이며(마 10:23), 보내는 분이 사용하신 말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messenger)가 아니었다. 사도들은 증인들로 선택을 받았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권위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해야 했다.⁹⁸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열두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사되심과 초대교회의 구원론과 기독교론 사이의 살아 있는 다리”였으며,⁹⁹ 기독교론적인 칭호를 그들의 글에 반영하였다. 기독교론적인 칭호의 발전을 근거로 복음서의 선후 관계와 의존성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

3.7 마가의 편집적 특성과 관련하여

두 자료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개선하고 세련되게 하였다고 생각한다.¹⁰⁰ 마가복음이 원시적인 것이고 히브리어/아람어적 표현에 가깝고, 문체가 거친 것을 마태와 누가가 편집적으로 손질을 가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¹⁰¹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κύριε라고 부른 것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입으로는 διδάσκαλε라고 부르게 한다. 마가에서는 명확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Riesner, “Jesus as Preacher and Teacher,” 187.

98 Riesner, “Jesus as Preacher and Teacher,” 198; Riesner, *Jesus als Lehrer*, 468-469.

99 Riesner, “Jesus as Preacher and Teacher,” 200.

100 Streeter, *The Four Gospels*, 162. 몇 가지 구체적인 예는 안병철, 『공관복음문제』, 108-127을 참조하라.

101 G. M. Styler, “The Priority of Mark,” in *The Birth of the New Testament*, 3rd ed. (New York: Harper & Row, 1982), 286.

그러나 이것은 항상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역도 성립될 수 있다. 공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카이 이두(‘보라,’ καὶ ἰδοὺ)”(마 9:2; 눅 5:18. cf. 막 2:3)를 예로 들어보자. 이 어구는 히브리어 “베히네(בהינ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보다 이 어구를 더 많이 사용한다.¹⁰²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제에 근거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더 고전적인 경우이며, 이런 면에서 마태와 누가가 전승의 더 오래된 상태를 표현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복음서 저자의 용어 개선과 문체의 세련됨 또는 문체의 거침은 문헌의 의존성 또는 선후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저자 자신의 고유한 기록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휘를 근거로 문헌적인 우선설을 주장할 수 없다.

4 나가는 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우선설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문제가 많이 있고, 그 이론이 공관복음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관복음에 들어 있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문헌적인 의존으로 설명하려는 최근 학자들의 경향에 대해, 필자는 그들의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했다. 마가복음 우선설의 근거로 제시된 공관복음서의 공통자료와 어휘의 유사성, 순서의 일치 등은 과장되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더군다나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려고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한 구전 전승보다 기록된 전승으로 마가복음을 생각한 것은 누가복음 1:14에 반영된 복음서 저자들이 의존

102 안병철은 ἰδοὺ를 마태와 누가는 사용했지만 마가가 빠뜨린 경우가 일곱 번 있다고 지적하고 그 사례를 소개한다(대표적으로, 마 9:20=눅 8:44 ≠ 막 9:27). 안병철, 『공관복음문제』, 40.

한 목격자들의 전승을 바르게 평가하지 않은 것임이 밝혀졌다.

또한 필자는, 복음서 내용의 분량과 문체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의 편집적인 특성을 근거로 복음서의 우선성을 논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 구전으로 전해지던 당대의 문화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복음서 저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무시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앞의 논의에 의해 마가복음 우선설은 그 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복음서 연구를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 신현우. 『공관복음으로의 여행: 최초의 복음서를 찾아서』. 서울: 이레서원, 2005.
- 안병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본 공관복음 문제』. 서울: 가톨릭대학출판부, 1989.
- Alexander, Loveday. *The Preface to Luke's Gospel: Literary Convention and Social Context in Luke 1.1-4 and Acts 1.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Argyle, A. W. "Evidence for the View that St. Luke Used St. Matthew's Gospel." *JBL* 83 (1963): 390-396.
- Bachmann, H. and Slaby, W. A. *Concordance to the Novum Testamentum Graece of NA²⁶ and to the Greek NT^{3rd} Edi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7.
- Blomberg, Craig.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the Gospels*. Downers Grove: IVP, 1987.
- Bock, Darrell L. *Luke 1:1-9:50*. ECNT. Grand Rapids: Baker, 1994.
- _____. "Scripture and the Realization of God's Promises." In *Witness to the Gospel: The Theology of Acts*. Edited by I. H. Marshall and D. Peterson. Grand Rapids: Eerdmans, 1998): 41-62.
- Butler, B. C. *The Originality of St. Matth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 Denova, Rebecca L. *The Things Accomplished Among Us: Prophetic Traditions in the Structural Pattern of Luke-Acts*. JSNTSS 14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Dillon, J. "Reviewing Luke's Project from His Prologue (Luke 1:1-4)." *CBQ* 43 (1981): 205-227.
- Edgar, T. R. "Source Criticism: The Two-Source Theory." In *The Jesus Crisis*. Edited by R. L. Thomas & F. D. Famell. Grand Rapids: Kregel (1998): 132-157.
- Elliott, J. K. "The Synoptic Problem and the Laws of Traditions: A Cautionary Note." *ET* 82 (1970-71): 148-152.
- Farmer, William R. Edited. *New Synoptic Studie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3.
- _____. *The Gospel of Jesus: The Pastoral Relevance of the Synoptic Problem*.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 _____. *The Synoptic Problem: A Critical Analysis*. Dillsboro: Western North Carolina Press, 1964.
-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AB 28.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81.
- Gerhardsson, B. *Memory and Manuscript*. Lund: Gleerup, 1961.
- _____. *The Origins of the Gospel Traditions*. 배용덕 옮김. 『복음서전승의 기원』. 서울: 솔로몬, 1993.

- Green, Joel B.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 Guthrie, Donald. *New Testament Introduction*. 김병국, 정광욱 옮김. 『신약서론』.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 Guy, H. A. "Did Luke Use Matthew?." *ExpT* 83 (1972): 245-249.
- Kim, Sang-Bok. *The Sources of the Synoptic Gospels-The Priority of Mark: Fact or Myth?*. Seoul: Torch Publishers, 1993.
- Kümmel, W. G.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박익수 옮김. 『신약정경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Linneman, E. *Is There a Synoptic Problem?: Rethinking the Literary Dependence of the First Three Gospels*. Translated by R. W. Yarbrough. Grand Rapids: Baker, 1992.
- Longstaff, T. R. W. *Evidence of Conflation in Mark? A Study of the Synoptic Problem*. SBLDS 28.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 _____. Review of *On the Independence of Matthew and Mark* by John M. Rist, *JBL* 100 (1981): 127-130.
- Longstaff, T. R. W. and Thomas, Page A. *The Synoptic Problem. A Bibliography, 1716-1988*. New Gospel Studies 4.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8.
- Marshall, I. H.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NIGN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 Marxsen, Willi.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An Approach to it Up-to-date Problems*. Philadelphia: Fortress, 1968 (German: 1964).
- Meijboom, Hajo Uden. *A History and Critique of the Origin of the Marcan Hypothesis 1835-1866. A Contemporary Report Rediscovered*. Translated by John J. Kiwiet.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3(Dutch: 1866).
- Metzger, Bruce M. *New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London: Lutterworth, 1969,
- Nolland, John. *Luke 1:-9:20*. WBC 34A. Dallas: Word Books, 1989.
- Ong, Walter J. *Orality and Literacy*. 이기우,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1995.
- Plessis, Du, "Once More: The Purpose of Luke's Prologue (LK 1.1-4)." *NovT* 16 (1974): 259-71.
- Rienecker, Fritz and Rogers, Cleon. *Linguistic Key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76.
- Riesenfeld, H. *The Gospel Traditions*. Philadelphia: Fortress, 1970.
- Riesner, Rainer. "Jesus as Preacher and Teacher." In *Jesus and the Oral Gospel Traditions*. Edited by Henry Wansbrough. JSTNSS 6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185-

210.

- Riley, Harold. "Internal Evidence." In *The Order of the Synoptics: Why Three Synoptic Gospels?*. Edited by Orchard, Bernard & Riley, Harold. Peeters: Mercer (1987): 3-108.
- Sanders, E. *The Tendencies of the Synoptic Tradi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Sanders, E. & Davies, M. *Studying the Synoptic Gospels*. London: SCM. 이광훈 옮김. 『공관복음서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Stein, R. H. *Gospels and Tradition: Studies on Redaction Criticism of the Synoptic Gospels*. Grand Rapids: Baker, 1991.
- _____. *Studying the Synoptic Gospels: Origin and Interpretation*, Second Edition. Grand Rapids: Baker, 2001.
- Stoldt, Hans-Herbert. *History and Criticism of the Marcan Hypothesis*. Translated by Donald L. Niewyk.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0(German: 1977).
- Styler, G. M. "The Priority of Mark." In *The Birth of the New Testament*. 3r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1982): 285-316.
- Thatcher, T. "Early Christianity and the Synoptic Eclipse: Problems in Situating the Gospels of Thomas." *Biblical Interpretation* 7 (1999): 323-339.
- Thomas, Robert L. (Ed.). *Three Views on the Origins of the Synoptic Gospels*. Grand Rapids: Kregel, 2002.
- Tuckett, C. M. *Reading the New Testament: Methods of Interpretation*. London: SPCK, 1987.
- Wenham, David. "자료비평." In 『신약해석학』 하워드 마샬 편집. 이승호, 박영호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204-219.

Rethinking on and Criticism to Marcan Priority

Oh, Kwang-Ma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has a goal to rethink on and to criticize to the Marcan Priority, hereby this author wants to claim that Marcan Priority doesn't have any scientific basis of its theory. Firstly, in relations of sources of Synoptic Gospels, Synoptic Gospels were composed by seven sources, while Marcan Priority presupposes two sources, which can not explain where the other five sources came from. In addition to this, scholars who adopts Marcan Priority tend to mistreat Luke 1:1-4. Secondly, the theory that on the basis of agreements of vocabularies used in Synoptic Gospels Mark was written first has little foundations. The ratio or statistics of using common vocabularies is relatively small in Synoptic Gospels.

Thirdly, agreement in the order of arrangement of units does not support Marcan Priority, either.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that Matthew and Luke followed the order of Gospel of Mark. Rather, the reverse case is to be found. Fourthly, that Gospel of Mark is shorter than the other two Gospels is totally unfounded. The length of each Gospel is depended on theological perspectives of its author not on its priority. Fifthly, the theory that style and/or vividness of the Gospel of Mark can not be foundation of priority, in that style and/or vividness comes from literary tendency of each author of Synoptic Gospels which was ruled by oral tradition. Sixthly, the belief that Matthew and Luke changed the content of Gospel of Mark, especially in Christology, is ill founded. Lastly, editori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Gospels are resulted in by the interests of the authors not by the priority of writings.

Key Words : Synoptic Problem, Synoptic Gospels, Marcan Priority, Source Criticism, Marcan Hypothesis.